

삼성전자, LCD 집단소송 위기

Bloomberg, 미국 구매자들 담합 소송 가능성 ... 샤프도 포함

삼성전자, 샤프(Sharp)등 LCD(Liquid Crystal Display) 제조기업들이 구매자들의 집단소송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loomberg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수잔 Y 일스틴 판사는 LCD 제조기업의 가격담합 관련 소송을 집단소송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1999-2006년 LCD 구매자는 물론 TV나 컴퓨터를 산 고객도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이미 벌금을 부여받은 LCD 제조기업들의 집단소송 위험도 더 커졌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30>